

AUTHOR 한정건

TITLE 개혁주의 신학전통의 역사적 고찰

IN 월간고신

(10, 1999): 54-59.

개혁주의 신학전통의 역사적 고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의 개혁사상은 칼빈의 제자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화란과 스코틀랜드-영국으로 건너간 종교개혁을 들 수 있겠다.



한 정 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들어가는 말

'개혁주의'란 넓은 의미로는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칼빈과 그 후예들의 개혁사상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혁주의'란 '칼빈주의'라는 말로도 대치될 수 있겠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의 개혁사상은 칼빈의 제자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화란과 스코틀랜드-영국으로 건너간 종교개혁을 들 수 있겠다.

화란에서의 칼빈주의

다른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화란에서도 1500년대에 들어오면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로마교의 신봉자인 스페인계의 황제 찰스 5세에 의해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크게 일어났다. 많은 개신교도들이 순교 당하고 일부는 화란 남부지방으로 피난 가서 종교개혁의 물결은 계속 되었다. 이 화란의 개신교 피난민들은 특히 칼빈과 접촉이 잦았으며, 그 이후에도 화란의 개혁교회는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박해 속에서도 개혁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여 1559년에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만든다. 이 신앙고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삼위일체, 교회론, 구원론), 37개 조항으로 나뉘었다. 교회론에는 교회의 권징을 강

조하였고, 교회의 직원을 명시 교회조직을 구체화하였다. 이 고백서는 참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① 말씀의 선포, ② 성례를 신실히 시행, ③ 권징을 충실히 시행 등으로 밝혔다.

화란에서의 개혁운동이 성공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이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된 결과였다. 1560년대에 이르러 개신교 신자들이 정부에 의한 탄압이 극심해지자 정부군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때에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송하였다. 개신교 신자들이 주축이 된 독립군이 이를 대항하여 싸웠다. 그리하여 개신교 운동은 바로 애국심과 동일시 되었다. 독립전쟁은 1566년에서 수십 년간 계속되었는데, 윌리엄 공과 그의 이들이 이끄는 독립군이 승리하여 1608년에 공식적인 독립을 성취하였다. 이로써 화란은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이 완성된 나라가 되었다.

핍박과 전쟁의 와중에서도 개신교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아갔다. 1597년에 엠덴에서 첫 총회가 개최되어 화란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가 탄생하였다. 신조는 수정한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채택하였다.

그러던 중 화란 교회는 1603년 아르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년-1609년)가 레이덴(Leiden)대학의 교수로 발탁됨으로써 심각한 신학적 논쟁에

빠지게 되었다. 아르미니우스는 경건주의자로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인간의 '믿음'에 강조를 두었다. 그의 5대 교리는 다음과 같았다: ① 예견설(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미리 예견하셨기에 선택하였음) ② 만인구속설(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③ 하나님 은혜의 필요성(인간이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의해 거절당할 수 있다 ⑤ 참 중생한 자도 신앙을 잃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1618년에 도르트(Dortrecht)에서 개최된 총회는 7개월의 장기간 토론을 거쳐 알미니안들의 주장에 답하는 다섯 가지 교리를 내어놓았으니, 이것이 곧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이다.

① 인간의 전적부패, 전적 무능력(Total depravity or total inability): 죄는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②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

③ 제한된 구속(Limited atonement or particular redemption):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지만 그가 죽으신 목적은 오직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령이 죄인 속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유효한 것이다.

⑤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번 중생받은 자는 일시적인 시험에 빠질 수는 있으나 구원을 영원히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총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삶에 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교회의 조직체계를 확정하고(당회, 노회, 총회), 교회의 권징을 철저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 아르미니우스 논쟁 결과 건전한 교리가 확립되었으며, 교회가 조직을 확실히 하게 되었고,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켜 경건된 삶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었다.

도르트회의 이후 경건운동은 지속되었으며, 선교(특히 해외선교)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앙적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하나님 주권사상’의 신앙고백이 교육과 사회생활에서 바탕을 이루었다. 어떤 직업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써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학문의 모든 영역도 바로 성경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칼빈주의의 학문과 생활원리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이 화란의 개혁주의는 약 200년간 지속되었다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전후

한 이성주의의 등장으로 서서히 쇠퇴하여갔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스킬더(Klaas Schilder)가 중심으로 하여 세운 작은 캄펜 신학교(소위 31조파라고 불리움, 원래의 캄펜 신학교는 따로 있음)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가 옛 개혁주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화란에서 출발한 개혁교회(Reformed Church 혹은 Christian Reformed Church)는 남아연방, 호주, 미국, 캐나다 등지로 퍼져서 개혁주의 신학사상의 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영국의 개혁주의 전통

영국이 개혁주의 교회로 준비되기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칼빈주의 교회가 확립되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나스(John Knox)는 모국에서의 개신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과 베자 밑에서 공부한 후, 1559년 모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다. 그의 영향으로 스코틀랜드에 개신교가 점점 확산되었고, 정부군과의 싸움과 전쟁을 거쳐 1960년에 개신교의 자유가 쟁취되었다.

나스와 그의 동지들은 교회를 정비하였는데, 제1 권징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를 편찬해 내어 교회의 조직을 만들었으며, 예배모범(the Book of Common Order)도 채택하여 참된 모범적인 참된 예배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요 문서들은 제네바의 것을 기

초로 한 것들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종교개혁과는 달리 당시에 영국의 종교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헨리 8세(1509년-1547년)가 카테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여, 이것을 반대하는 로마교황에서부터 탈퇴하여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다. 헨리 8세는 1534년 소위 ‘교회 수장령’을 발표하여 국왕이 영국교회의 유일한 수장임을 선언하였고, 개혁신앙을 허용하였다. 왕의 이혼과 재혼을 신학적으로 도와준 크렘머가 대주교 및 궁전 목사로 발탁되었고, 영국의 종교개혁은 크렘머가 이끄는 영국 국교회로 흘러간 것이다.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륙으로 피신하였던 개혁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중에 후퍼(John Hooper)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피난에서 돌아 온 개혁자들과 사상과 로마교의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크렘머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개혁의 큰 차이가 있었다. 그 한 단면이 후퍼와의 ‘사소한’ 논쟁이었다. 크렘머가 후퍼에게 감독직을 수여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후퍼는 감독직은 받되 특별한 의식이 없이, 그리고 기운을 쓰

지 않고 직분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소한’(indifferent) 논쟁으로 불리워졌다. 크렘머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은 교회전통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후퍼는 성경에 없는 교회의 전통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기운을 입는 문제와 같은 ‘사소한’ 일은 그 자체로서는 정말 사소한 일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성직자가 권위를 입기를 바라는 쪽과 그 권위를 과감이 벗

■ 한국의 장로교회는 주로 호주와 미국 등의 장로교회를

전송하였다. 즉,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남긴 교회의 유산들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는 바로 청교도 사상이 그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라 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칼빈주의 지류인 화란의 개혁교회 전통을 잊어서는 안된다. ■

어버려야 한다는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과의 투쟁이었던 것이다.

왕권이 에드워드 4세를 거쳐 카테린 왕비의 딸인 메리 여왕으로 바뀌자, 메리는 로마교로 복귀하였다. 개신교의 모든 법령은 폐지되었고 개신교의 목사와 감독들이 투옥되거나 순교를 당하였다. 물론 크렘머도 여러 번 투옥당하였다가 끝내는 순교당하였다.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영국 국교회로 회귀하였다. 다시 떠났던 많은 개혁자들이 돌아왔다. 1966년에 여왕은 감독들에게 같은 기운을 입을 것을 명령하였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세간

에서는 '진짜 남은자들'(precisians) 혹은 '퓨리탄들'(puritans)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점점 국교회 주의자들과 퓨리탄들과의 이념적 골은 깊어가고 있을 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

1603년에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천명의 개혁자들이 왕에게 탄원서를 올렸다(millenary petition=천명의 청원). 이 청원의 주 내용은 ① 로마교적인 것을 제거할 것, ② 감독이 여러 교회를 관장하지 말고 지교회는 각각의 담임 목사에게 맡길 것, ③ 감독의 권한을 축소시킬 것 등이었다.

제임스 왕은 이러한 개혁자들을 무마하기 위해 성경번역 사업을 일으켰다. KJV(King James Version) 영어 번역 성경이 1604년에 시작하여 1610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왕은 '제왕 신수설'을 주장하고 주일은 불경건하게 범해지게 되고,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 이 당시 국교회와 청교도들의 가장 큰 논쟁은 ① 가운을 입는 것, ② 교회정치의 개혁 등이었다. 청교도들은 차츰 교회에서 떠나 따로 집회를 가졌다. 많은 청교도들은 해외로 다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620년 '순례의 아버지들'(the Pilgrim Fathers)도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갔다.

1625년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제왕 신수설'이 더 강하여지고,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하여졌다. 1629년 왕은 국회를 해산하고 절대군주 정치

를 했다. 영국 국교회는 왕의 손발 역할을 하였고, 교회는 귀족화 되어갔다. 국회는 왕권에 도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이때에 국회군의 지도자는 독립교회 주의자인 크롬웰(Cromwell)이었고, 청교도 신자들이 여기에 합세하였다. 1643년 크롬웰이 이끄는 국회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찰스 국왕은 사형당하였다. 국회는 감독제도를 폐지하고, 영국 국교회의 신조들(예배일치령, 39개 신조 공동기도서 등)을 폐지하였다.

정치가 안정을 찾자 교회정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회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1643년에 151명의 신학자, 목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이 위원이 된 웨스트민스터 회의(Westminster Assembly)가 열렸다. 신학자와 목사들은 대부분 청교도들이었으며, 스코틀랜드 신학자 5-6명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했다. 여기에서 채택한 중요한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헌법: 스코틀랜드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스코틀랜드의 제2권징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칼빈주의적 장로교 형태를 갖추었다.

②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칼빈주의적 교리의 총 집합체라고 부를 수 있다. 성경관을 제일 먼저 취급하였으며, 오직 성경만이 교회가 권위로 인정하였다. 신론은 사도신경을 기초로 하였고, 구원론에는 하나님 주권사상을 부각시켰다. 신자의 기록

한 생활을 강조하였다.

③ 대-소요리문답(Sorter and Larger Catechism):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해 쓰여졌고, 소요리문답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작성되었다. 107항의 질문과 답으로 엮여졌다.

④ 예배모범: 스코틀랜드의 예배모범을 기초로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회의 이후 잠시동안 영국 국교회는 개혁주의의 꽃을 피웠다. 그러나 이러한 황금기는 20년을 넘지 못하였다. 1660년에 찰스 2세가 복귀하여 왕정시대가 다시 열림과 함께 교회도 영국 국교회로 돌아가고 말았다. 목사들은 감독으로 다시 인수받든지 아니면 면직을 당하였다. 많은 청교도 목사들이 투옥되었다. 비 국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미국 등의 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영국의 개혁주의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함께 잠깐 꽃을 피우다가 졌다. 그러나 교회헌법,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등 훌륭한 개혁주의 유산이 남게 되었다. 그 유산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 한국으로까지 전수하게 되었다.

끝맺는 말

한국의 장로교회는 주로 호주와 미국 등의 장로교회를 전승하였다. 즉,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남긴 교회의 유산들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에서의 개혁주의는 바로 청교도 사상이 그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라 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칼빈주의 지류인 화란의 개혁교회 전통을 잊어서는 안된다. 장로교회에서 미흡한 개혁주의 사상을 우리는 개혁교회에서 훌륭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신학자들이 미국과 화란 계통 양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합쳐져 있으므로 한국 교회는 이 양자 모두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한국 교회가 이 양자 모두의 중요한 개혁주의 사상을 잘 습득하여 완성된 개혁주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교신

